

온도계의 바늘은 40도를 넘었다? 야마토 운수, 열사병 대책을 요구하는 파업 ①

콘노 하루키 POSSE

* 이 기사는 일본 POSSE의 대표인 콘노 하루키가 야후 저팬에 8월 23일자로 기고한 글입니다. 이 기사를 일터 11월과 12월에 걸쳐 게재합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올 여름 일본에서는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이 역대 최장 61일간 지속됐다. 위험한 더위는 9월 말까지도 계속됐다. 이러한 영향으로 직장에서의 열사병이 확산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직장에서의 열사병에 의한 사상재해 발생 상황」에 의하면, 2023년 직장에서의 열사병 사상자는 1,106명(전년 대비 279명·34% 증가)으로 대폭 증가했다. 게다가 이 수는, 「사망·휴업 4일 이상」으로서, 산재가 인정된 수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19일 야마토 운수 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 A씨가 홀로 열사병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파업을 벌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야마토 운수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A씨는 55세 남성으로, 야마토 운수에서 27년간 일했다. 운전기사로 일하다 작년에 창고 내 작업자로 전보되었다. A씨는 9시부터 19시까지 9시간 노동(휴식 1시간)을 주 5일 정도 하고 있다. 사업장에 들어온 화물을 각 기사별로 분류하거나 창고 내 정리정돈을 한다. A씨는 주로 서서 일하고, 창고 안을 돌아다니며 최대 30kg에 달하는 짐을 손에 들고 분류하기도 한다. A씨가 일하는 창고는 창문 수가 적고, 그나마 절반 정도는 녹이 슬어 열리지도 않았다. 또 창고 내에서도 택배 트럭이 시동을 끄지 않아 배기가스의 뜨거운 공기로 더 더웠다.

올해 7월이 되자 A씨가 일하는 창고 내 최대 40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가 고장나 ‘열사병 지수’가 ‘위험’을 가리키는 날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야마토운수가 노조에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이 온도계는 고장이 나서 이미 회수했고, 정확한 온도는 최대 36도이며, 31도 이상이 ‘위험’으로 간주되는 ‘열사병 지수’도 29에서 30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업소에는 열사병 대책으로 소금사탕 배포, 업무용 선풍기 1대, 국소 냉방기 2대, 워터서버 등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더위를 견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로 인해 A씨는 매일 땀을 많이 흘렸고, ‘땀띠’가 사라지지 않았으며, 더위로 인한 두통도 계속되어 ‘록소닌’(진통제)을 복용하며 버텼다. 8월 초 A씨가 병원을 찾았을 때 ‘온열질환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전용 약도 처방받았다. 지난해까지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는 창고보다 더 열악한 배송기사들의 환경도 우려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에 따라 야마토 운수는 즉시 업무용 대형 선풍기를 새로 도입하고 스팟 쿨러를 증설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동종업계인 사가와큐빈이 시행하고 있는 냉방복이나 넥 쿨러는 여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응원하고 싶다

종합 서포트 유니온에서는 A씨의 기자회견 다음날부터 열사병 상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는 ‘나도 A 씨와 같다’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상담 사례 1 : 물류 대기업 창고에서 근무하고 있다. 창고에는 스팟 쿨러와 선풍기 몇 대가 있다. 온도계도 없다. 더위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3명이 쓰러진 적도 있고, 자신도 두통이 계속되거나 속이 메스꺼운 채로 일하고 있다. 쓰러진 사람들이 산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자신도 예전에 직장에서 쓰러져 산재를 신청하려고 상사에게 상담한 적이 있는데, 업무 시간 외에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해서 포기했다.

상담 사례 2 :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다. 창고에는 온도계도 없고, 2대밖에 없던 스팟 쿨러 중 1대는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다. 열사병으로 동료 아르신이 조기 퇴근하고 2주 정도 휴업했다가 복귀했다. 에어컨 옷과 넥 쿨러를 자비로 구입했다.

이는 이날 노동상담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A씨와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일본 전역에 많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 사업장들은 경영진이 현장의 온도와 열지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폭염 대책을 거의 시행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개선을 요구해도 무시하기 일쑤고, 노동자들은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심지어 노동자가 쓰러져도 산재 신청이 쉽지 않다. 